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4년 12월 22일
(월요일)

강북신문 5면



강북구의회, 2014년도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5일 제 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3시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은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진행됐으며 수유2동 정소영 씨 외 41명 등 지역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동식 의장은 “봉사는 자기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지역에는 발전과 도약을!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는 성취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강북구 전역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고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서울포스트신문 4면



강북구의회 김동식 의장이 지역발전 유공자 4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강북구의회, 2014년도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는 지난 15일 제 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3시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 및 구정 발전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수유2동 정소영씨

외 41명 등 지역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김동식 의장은 2014년도 강북구 지역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마흔 두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 강북구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속담에 ‘남의 빨래를 했더니 내 발이 깨끗해졌다.’라는 뜻의 이 속담처럼 “봉사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지역에는 발전과 도약을!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는 성취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강북구 전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강북구 전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강북구의회, 2014년도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김동식 의장, “남의 빨래를 했더니 내 발이 깨끗해졌다” 격려



▲ 강북구의회가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3시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진행됐으며 수유2동 정소영 씨 외 41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받았다.

김동식 의장은 2014년도 강북구 지역발전 유공자로 선정된 수상자를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우리 속담에 ‘남의 빨래를 했더니 내 발이 깨끗해졌다’는 뜻의 속담처럼 봉사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지역에는 발전과 도약을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는 성취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강북구 전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며 격려했다.

최한규 기자(donstopme@hanmail.net)

강북구의회, 2014년도 지역발전 유공자 표창 수여

“강북발전의 위대한 역사도 구민 한분 한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땀 흘린 작은 노력과 성과가 쌓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

강북구의회의장 김동식은 지난 15일 제1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 후 오후 3시부터 3층 본회의장에서 지역발전 유공자에 대한 표창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표창은 강북구의회 의정활동 및 구정발전에 적극 협조함은 물론, 평소 투철한 책임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분들을 발굴하여 격려하고자 진행되었으며 수유2동 정소영씨 외 41명 등 지역발전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하였다.

김동식 의장은 “거대하게 흐르는 큰 강물도 기원을 찾아가면 작은 냇물들이 모이고 만나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강북발전의 위대한 역사도 구민 한분 한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땀 흘린 작은 노력과 성과가 쌓이고 모여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를 통해 밝고 건강한 에너지가 우리 강북구 전역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길 부탁한다. 오늘 수상하신 42분 모두



▲ 강북구의회 2014년도 지역발전 유공자들이 함께 한 모습.

가 평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소리없이 헌신하고 봉사해 오신 분들이며,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 강북구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있다. 강북의 정의 든든한 조력자이자 책임 있는 주인의 식으로 강북구 발전에 앞장서 주신 수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우리 속담에 ‘남의 빨래를 했더니 내 발이 깨끗해졌다’ 라는 뜻

의 이 속담처럼 봉사는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되며 여러분의 아름다운 봉사와 선행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우리지역에는 발전과 도약을! 그리고 여러분 앞날에는 성취와 보람을 가져다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말을 전하였다.

〈박은주 기자 je1718@naver.com〉